

## 부모의 성취압력과 진로포부의 관계 연구: 학업적 자기효능감,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정민\*\* · 정혜원\*\*\*

### 초 록

본 연구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D광역시와 C지역 소재의 중학생 360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성취압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스마트폰 중독, 진로포부의 척도를 사용하여 그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분석, 측정모형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한 결과 첫째, 청소년기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직접효과를,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적인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성취압력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을 높게,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수준을 낮게 하는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을 경유하여 자녀의 진로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을 경유하여 진로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중학생의 긍정적 진로포부 인식 및 성공적 성취를 돕기 위하여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증진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부모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부모의 성취압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스마트폰 중독, 진로포부

\* 본 연구는 이정민(2014)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chw7@cnu.ac.kr

## I. 서 론

우리나라 청소년의 대부분은 공부와 관련된 고민을 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과거에 비해 부모들은 자녀를 적게 낳아 기르면서 자녀에게 주는 관심의 정도와 높은 기대로 인해 자녀들은 학업과 관련한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부모의 바람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높으며, 자녀의 흥미나 적성 소질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부모 자신이 원하는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는 과거 부모의 부족한 학력과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만족을,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지위 상승과 자녀의 사회적 성공을 보며 대리만족을 얻으려는 부모의 욕구에서 기인된 것으로(이숙현, 백진아, 2004), 성공지향적인 사회적 요구와 더불어 학력우선주의의 교육열(오옥환, 1999)은 자녀에게 성취압력으로 작용하고, 심리적·정서적 부적응을 경험하게 하며 학업성취의 상황에서 오히려 무기력해지게 된다(김유진, 김중운, 2013). 이와는 달리 부모의 성취압력이 자녀들의 학업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며 부모로부터의 칭찬이나 격려 등의 정서적 지원을 통해(이선녀, 2010), 자신이 성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기며(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자신의 진로 탐색과 참여로 건설적인 자아상을 형성하여 진로를 탐구한다(우영진, 홍혜영, 2011).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기 자녀의 인지 발달과 정서적 측면에 관계하며(이지연, 하정희, 전수현, 2006), 자녀의 수용에 의한 다른 지각으로(김유진, 김중운, 2013), 청소년 자녀의 학업과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Larson과 Richard(1995)에 따르면 부는 모와 다르게 경제적 제공자로 인식되며 최종 판단자로서 도구적 영역에 속하는 이차적 역할을 수행하고,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년 자녀와 함께 외출하기, 식사하기 등으로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며, 부 보다는 모와 더욱 친밀한 관계 형성 및 개인적인 문제를 공유하기에 청소년 자녀는 부의 관여보다 모의 관여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게 된다고 하였다(정은미, 2007, 재인용). 이것은 초기 양육자와의 애착관계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대인관계의 기초를 이루기 때문이며, 초기 양육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자신과 타인을 일치된 방식으로 인지하게 되고 행동한다는 Bowlby(1982)의 내적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에 의해 설명된다(이시은, 이재창, 2008, 재인용). 따라서, 초기 양육자와의 애착관계는 가정 및 사회에서 부·모가 갖고 있는 남녀 간의 특성에 따라 형성되는 행

동기준으로 사회가 지향하는 관습, 가치, 규율과 같은 문화 속에서 기대하는 역할의 인식과 체험에서 기인되며(곽삼근, 조혜선, 윤혜경, 2005), 실제 한국 청소년들도 부모보다는 모의 태도가 청소년의 역할과 태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이윤석, 2004). 그러므로 부와 모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청소년들은 부와 모의 상호관계에 따라 부모보다는 모의 성취압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와 모의 서로 다른 성취압력에 대한 청소년 자녀의 지각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의 성취압력 지각을 어떻게 하느냐는 사람마다 똑같은 상황과 현상에 대해 인지하고 판단하는 수준이 다른 것은 객관적 상황이나 경험의 실제 사건보다 주체자인 개인의 주관적인 시각이 중요하다는 Beck(1976)의 연구에 의해 설명된다(김유진, 김중운, 2013, 재인용). 그러므로, 부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에 의해 주관적이며 개별적으로 지각되기 때문에 자기보고를 통하여 평가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부모의 성취압력은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교육적 관심, 성취기대, 역할기대 등에 관하여 자녀가 지각한 압력(박수자, 1996)으로 정의하고 자녀에 의한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을 주요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인 부모는 청소년 자녀에게 심리적·정신적으로 영향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의 성취압력에 대한 자녀의 지각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관계하고(이수진, 조상철, 허일범, 2008; 오정희, 선혜연, 2013), 통제 및 간섭으로 인식되어(강만철, 오익수, 2002) 욕구와 행동의 조절 곤란을 겪고(김교정, 서상현, 2006), 신체적·심리적 부적응에 의해 스마트폰 중독에 관계되며(김병년, 최홍일, 2013; 박은민, 박기희, 2014),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동경하고 높은 곳으로 오르고자 하는 진로포부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은영, 2009; 전태숙, 2013; O'Brien, Friedman, Tipton & Linn, 2000).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부모의 성취압력을 하나의 단일변인으로 보았으며, 부모의 성취압력과 진로포부의 관계(우영진, 홍혜영, 2011), 학업적 자기효능감(박외자, 2010; 양난미, 이은경, 2008; 전태숙, 2013)과 스마트폰 중독(김병년, 최홍일, 2013; 박은민, 박기희, 2014)의 관계에 대하여 독립적인 영향력을 탐색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의 과도기적 시기이며 일반교육에서 전문교육으로 전환하는 시기의 중학교 청소년들이 갖는 진로 인식 및 포부를 탐구하

고자 중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부와 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각각의 성취압력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의 직접효과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와의 차이를 검증하고,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스마트폰 중독, 진로포부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취압력을 하나의 단일변인으로 보는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부와 모의 분리된 성취압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와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부·모의 성취압력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2. 부·모의 성취압력은 스마트폰 중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부·모의 성취압력은 진로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4. 부·모의 성취압력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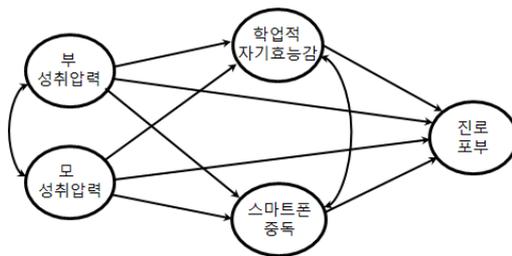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II. 이론적 배경

### 1.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자녀는 부모의 성취압력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박영옥, 김정희, 2009), 가정에서 부모의

태도와 행동, 부모-자녀관계에서 대리학습에 의한 자녀의 행동 변화와 칭찬과 같은 언어적 설득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밀접하게 관련되어있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따라 자기효능감의 형성에도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Badura, 1997). Bandura(1986)와 Schunk(1990)에 의하면 학습상황에서 학습자 스스로 과제를 선택하고, 선택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고,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끈기를 갖게 하는 것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라고 정의하고(김아영, 박인영, 2001, 재인용), 외부로부터 인정받거나 유능하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도식(self-schema)에 따라 부모로부터 받게 된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이 강화된다고 보았다(이수진 외, 2008). 하지만, 부모로부터 자신의 소질 및 능력과 관련하여 그 이상의 압력을 받는다고 지각하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뿐 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또한 낮아지고 심리적·정신적 영향을 받게 되며(김현순, 2009), 자기조절효능감을 떨어뜨려 청소년의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박영신, 김의철, 2001). 이처럼 부모의 성취압력과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 부모의 성취압력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부모의 성취압력과 스마트폰 중독

Brenet, Kolko, Allan and Brown(1990)은 가정 내 분위기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중대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하였다(손진희, 손은령, 2007, 재인용). 구체적으로 부모 양육태도(김민경, 2012; 오채미, 공인숙, 2007) 및 부모자녀 의사소통(박중규, 배성만, 2012)은 자녀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 중에서도 성취압력은 청소년 자녀의 중독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변인 중 하나라고 보고하였다(장재홍, 2004).

중독(addiction)이란 특정한 행동, 습관, 기호에 빠지거나 자신을 내 맡기는 상태로 정의된다(김동일 외, 2012). 이에 중독은 특정한 물질에 의존하는 물질중독과 특정행위나 활동을 반복하는 행위중독의 두 가지로 구분되며,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은 특정기기와 매체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지하여 찾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행위중독으로 여겨진다(강희양, 박창호, 2012). 따라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은 신체적 측면은 물론 정신적, 사회적 측면과 연관되어 있어, 과다 사용하였을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내성 및 금단, 통제력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청소년들은 학교생활과 친구관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생활의 주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불안한 감정을 경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여(박은민, 박기희, 2014),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강희양, 박창호, 2012).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효능감의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스마트폰 중독과 자기효능감이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김여란, 2013) 김형지, 김정환과 정세훈(2012)은 낮은 자기효능감 및 자극적 경험을 추구성향이 높은 것은 스마트폰 중독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을 예측해 주는 주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고하였으며, 융상화(2013)는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은 청소년의 정체성을 결여시키고, 낮은 자기효능감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 3. 부모의 성취압력과 진로포부

청소년기의 진로발달에 있어 심리적 환경요인으로 부모와의 관계는 중요하다. 특히,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원조를 받는다고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자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며, 자발적 참여와 건설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쳐 진로분야에 높은 수준의 포부를 갖게 된다(우영진, 홍혜영, 2011). 이는 독립된 존재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성장기이며, 자신의 미래 설계를 위해 고민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Gottfredson(1981)의 진로포부 발달단계 중 4단계의 '내적 자아 확립 단계'에 속하며 이 단계에서의 청소년은 자아 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하고 자신의 가치, 능력, 성격 등을 기준으로 직업선택의 범위를 축소시키며 직업을 선택하고자 한다(박외자, 2010, 재인용). 또한, O'Brien(1996)에 의하면 개인의 진로 발달과 관련된 변인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얻고자 하는 기대 수준을 의미하는 진로포부를 설정하여 진로선택을 명료하고 구체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고 하였다(이정애, 최웅용, 2010, 재인용).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형성된 학생들은 학업수행능력에 자신을 보

일 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이런 기대는 높은 진로포부를 갖게 되는 것이다(이은영, 2009; 이정애, 최웅용, 2010). 그렇지만, 이와 반대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심리적 긴장상태를 경험하고(마미영, 정태연, 2005), 진로장벽을 지각하며(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심리적 긴장상태의 대응방식 결여는 인터넷 사용을 촉진하여 심리적 거부감을 떨쳐버리고자 하지만(김동은, 장성숙, 2011), 오히려 지나친 사용으로 중독에 이르러 진로 방향 설정이 제한되고 자신의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손정순, 김봉환, 2009).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D광역시와 C지역에 소재한 3개 학교에 재학 중인 학년말 1·2학년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 2월 6일부터 2014년 2월 17일까지 총 12일에 걸쳐 463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 세트로 구성된 각각의 척도는 학과담임 교사들이 담당하여 실시하였으며,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거나 무성의하게 응답한 103명의 응답을 제외하고 360명을 대상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D광역시와 C지역에 소재한 3개 학교의 학생들은 모든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조사대상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학생은 164명(45.6%), 2학년 학생은 196명(54.4%)을 차지하였으며, 전체 중학생의 남학생은 150명(41.7%), 여학생은 210명(58.3%)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한 기간은 2년 이상~3년 미만 123명(34.2%), 1년 이상~2년 미만 118명(32.7%), 3년 이상 64명(17.8%), 6개월 이상~1년 미만 38명(10.6%), 6개월 미만 17명(4.7%)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 155명(43.1%), 고등학교 졸업 128명(35.6%)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 131명(36.4%), 고등학교 졸업 148명(41.1%)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장생활에 있어서 부모 두 분 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238명(66.1%), 부만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107명(29.7%) 순으로 나타났다.

## 2. 연구도구

### 1) 부모 성취압력 척도

부모의 성취압력을 측정하고자 김유진과 김종운(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도구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모의 기대와 압력을 내용으로 하여 부모의 성취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다음에는 꼭 누구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을 잘 하신다.”와 같이 성적과 관련한 부모의 기대와 압력을 내용으로 하는 하위영역 없는 단일변인으로 구성된 20문항 중 개념이 중복되는 5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5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위하여 단일변인으로 이루어진 자료의 비정규성 문제를 최소화 하고, 모형의 적합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문항 꾸러미화 방법(item parceling method)을 사용하였다(Bandalos, 2002; 서영석, 2010, 재인용). 이와 같은 방법은 잠재 변인을 동일한 수준으로 문항 꾸러미에 나타냈을 때 꾸러미의 반영 효과가 최대화되기에 사용하며, 꾸러미 할당을 위하여 한 개로 요인을 설정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 한 후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높은 순서에 따라 순위를 지정하고, 문항 꾸러미들 간에 잠재변인의 부하량이 일정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인부하량이 가장 높은 문항과 요인부하량이 가장 낮은 문항을 짝으로 엮어 3개의 꾸러미에 각각 분배하였다(서영석, 2010).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가 5점인 Likert식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점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성취압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의 성취압력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부 성취압력 .894, 모 성취압력 .895으로 나타났다.

### 2)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한 척도의 28개 문항 중 자기조절효능감 8문항, 과제난이도 선호 8문항, 자신감 6문항으로 총 22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가 5점인 Likert식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점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조절효능감은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잘 마칠 수 있다.”와 같이 자기관찰·자기판단의 인지적 과정과 자기반응의

동기적 과정을 평가하는 문항이고, 과제난이도 선호는 “쉬운 문제보다는 조금 틀리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다.”와 같이 목표선택에 있어 어떠한 수준의 난이도를 선호하는가를 평가하는 문항이며, 자신감은 “수업시간에 발표할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와 같이 학습능력에 관해 보이는 확신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검사도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874로 나타났다.

### 3) 스마트폰 중독 척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에서 개발한 청소년 진단용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5개의 문항 중 일상생활장애 5문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으로 총 13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가 5점인 Likert식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점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높음을 의미한다. 일상생활장애는 “스마트폰을 너무 자주 또는 오래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와 같이 스스로 사용량을 조절하지 못하여 자신의 과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평가하는 문항이고, 금단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와 같이 불안과 초조함을 평가하는 문항이며, 내성은 “스마트폰 사용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습관화 되었다.”와 같이 스마트폰 사용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함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검사도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908으로 나타났다.

### 4) 진로포부 척도

진로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O'Brien(1992)이 제작한 척도를 양난미와 이은경(2008)이 번안하여 사용한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10개의 문항 중 리더포부 5문항, 노력포부 2문항으로 총 7개 문항을 사용하였고(Gray, 2002),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에 따라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점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포부가 높음을 의미한다. 리더포부는 “나는 내 진로 분야에서 리더가 되고 싶다.”와 같이 원하는 직업분야에서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을 평가하는 문항이고, 노력포부는 “나의 직업분야에서 전문가로 발전하려고 계획하

고 있다.”와 같이 최고의 지도가가 되기 위한 발전과 노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검사도구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734로 나타났다.

###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는 관련변인들의 구조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측정모형을 구성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하여 이론모형을 검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해당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chi^2$  차이검증과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였다. 모형적합도 평가를 위해 표본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CFI(Comparative Fit Index)와 모형의 적합도와 간명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모형적합도의 판단기준은 TLI와 CFI의 경우 .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이고(홍세희, 2000), RMSEA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는데 .06 이하면 좋은 적합도, .08 이하면 괜찮은 적합도, .10 이하면 보통 적합도, .10 이상이면 나쁜 적합도이다(Browne & Cudeck, 1993). 또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랩(Bootstrapping) 검증법을 실시하였다(Shrout & Bolger, 2002). 이에 따라 부트스트랩 검증에 원자료( $N=360$ )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의 표본이 모수추정에 사용되었으며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95%로 설정하였다. 개별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해 Sobel test도 실시하였다(서영석, 2010).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1.0)프로그램과 AMOS(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부모의 성취압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스마트폰 중독, 진로포부의 4가지 변인을 중심으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여 상관분석, 모형의 적합도, 경로계수, 각 경로의 직·간접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 1.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모든 척도와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척도의 타당도 지수

	$\chi^2$	<i>df</i>	TLI	CFI	RMSEA (90% CI)
부 성취압력	208.688***	79	.902	.926	.072 (.061~.083)
모 성취압력	226.419***	79	.906	.929	.072 (.061~.083)
학업적 자기효능감	397.127***	206	.932	.939	.050 (.042~.057)
스마트폰 중독	266.711***	62	.895	.917	.092 (.081~.104)
진로포부	49.543**	13	.894	.934	.085 (.061~.111)

\*\* $p < .01$ , \*\*\* $p < .001$

#### 2. 측정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는 모든 변인들의 인과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표 2와 같다. 주요 변인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과제난이도 선호·자기조절효능감과 일상생활장애·금단·내성의 관계에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높은 수준의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기조절효능감이 높을수록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하여 학습

을 위한 기회를 만들고, 수업참여를 통하여 일상생활장애·금단·내성의 중독적 상황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게 됨을 유추할 수 있다.

표 2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및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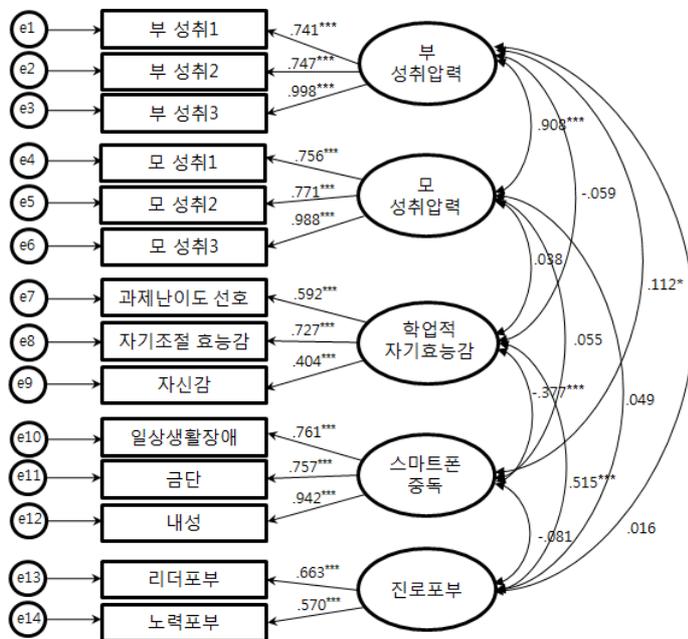
(N = 360)

	부 성취 1 ①	부 성취 2 ②	부 성취 3 ③	모 성취 1 ④	모 성취 2 ⑤	모 성취 3 ⑥	과제 난이도 선호 ⑦	자기 조절 효능감 ⑧	자 신 감 ⑨	일상 생활 장애 ⑩	금단 ⑪	내성 ⑫	리더 포부 ⑬	노력 포부 ⑭
②	.649**													
③	.710**	.711**												
④	.854**	.558**	.649**											
⑤	.553**	.862**	.654**	.650**										
⑥	.617**	.628**	.904**	.713**	.731**									
⑦	.021	.169**	.045	.082	.195**	.091								
⑧	-.044	.083	-.041	.017	.127*	.014	.448**							
⑨	-.201**	-.120*	-.179**	-.108*	-.026	-.100	.179**	.297**						
⑩	.198**	.109*	.208**	.139**	.080	.183**	-.121*	-.176**	-.163**					
⑪	.056	-.014	.070	.014	-.024	.049	-.269**	-.208**	-.208**	.568**				
⑫	.061	.004	.081	.007	-.054	.027	-.223**	-.225**	-.195**	.719**	.713**			
⑬	.006	.053	.038	.050	.055	.065	.180**	.231**	.182**	.063	-.028	.036		
⑭	-.059	.001	-.030	-.033	.001	-.019	.194**	.245**	.058	-.163**	-.132*	-.151**	.377**	
M	2.312	2.627	2.260	2.419	2.699	2.329	2.799	3.083	3.215	2.767	2.210	2.647	3.358	3.493
SD	.796	.844	.759	.835	.856	.790	.692	.584	.828	.830	.900	.803	.636	.777
왜도	.651	.262	.663	.622	.227	.729	.114	.155	-.181	.045	.700	.185	.317	.310
첨도	.253	-.456	.634	.082	-.507	.683	.284	.775	-.224	-.275	.223	-.107	.016	-.239

\* $p < .05$ , \*\* $p < .01$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인으로 사용된 5가지 변인인 부의 성

취압력, 모의 성취압력, 진로포부, 스마트폰 중독,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측정모형을 구성하여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해당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hi^2(df)=207.910(65)$ ,  $p < .001$ , TLI= .942, CFI= .958, RMSEA= .078( .066~.090)이다. TLI, CFI 모두 .90이상을 충족하였고, RMSEA 값은 .078로 보통수준을 의미하며 측정모형 적합도 역시 수용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와 같이 잠재변인을 설명하고 있는 측정변인들의 요인 값은 부 성취압력( .741~ .998), 모 성취압력( .756~ .988), 학업적 자기효능감( .404~ .727), 스마트폰 중독( .757~ .942), 진로포부( .570~ .663)로 모두 유의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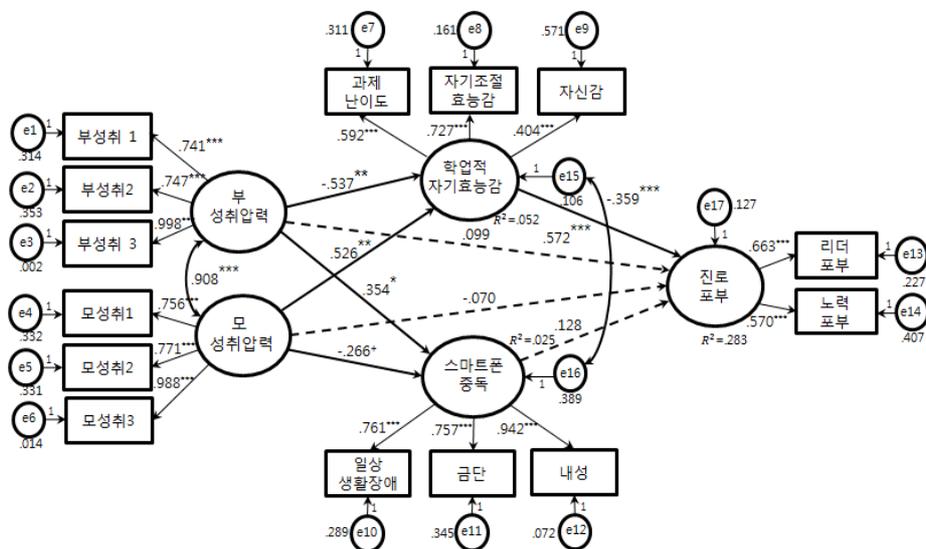
\*  $p < .05$ , \*\*\*  $p < .001$

그림 2. 측정모형(경로계수는 표준화계수)

## 2. 구조모형 검증

### 1) 연구모형 검증

본 연구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스마트폰 중독, 진로포부간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chi^2(df)=207.910(65)$ ,  $p < .001$ , TLI= .942, CFI= .958, RMSEA= .078(.066~ .090) 양호한 적합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을 적합한 모형으로 간주하여 이를 분석하였다.



+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그림 3. 연구모형(경로계수는 표준화계수)

### 2) 연구모형의 경로분석

표 3은 그림 3의 연구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의 추정치 결과이다. 표 3의 연구모형 경로계수 중 부 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t=-2.949$ ,  $p < .01$ ), 모 성취압

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t=2.886, p < .01$ ), 부 성취압력과 스마트폰 중독( $t=2.535, p < .05$ ), 모 성취압력과 스마트폰 중독( $t=-1.904, p < .10$ ),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 $t=4.149, p < .001$ )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반면, 부·모의 성취압력과 진로포부, 스마트폰 중독과 진로포부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경로계수는 표 3과 같다.

표 3  
연구모형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경로	비표준화 계수	S.E	t	표준화 계수
부 성취압력 → 학업적 자기효능감	-.179	.061	-2.949**	-.537
모 성취압력 → 학업적 자기효능감	.176	.061	2.886**	.526
부 성취압력 → 스마트폰 중독	.223	.088	2.535*	.354
모 성취압력 → 스마트폰 중독	-.168	.088	-1.904 <sup>+</sup>	-.266
부 성취압력 → 진로포부	.042	.076	.549	.099
모 성취압력 → 진로포부	-.030	.076	-.387	-.070
학업적 자기효능감 → 진로포부	.720	.174	4.149***	.572
스마트폰 중독 → 진로포부	.085	.056	1.529	.128

<sup>+</sup> $p < .10$ , \* $p < .05$ , \*\* $p < .01$ , \*\*\* $p < .001$

### 3) 효과의 분해

연구모형의 변인 간 관계를 보다 자세히 이해하기 위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해한 결과는 표 4와 같으며,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과 관련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 영향은 부와 모가 서로 다르게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와 같이 부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537)은 낮아지는 반면, 모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526)이 높아지는 직접효과가 나타났다. 결국, 부의 성취압력은 청소년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모의 성취압력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성취압력과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영향은 표 4와 같이 부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354)에 직접효과로써 중독을 증가시키는 반면, 모의 성취압력은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266)에 직접효과로써 중독을 감소시키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셋째, 부모의 성취압력과 진로포부 관계에서 표 4와 같이 부의 성취압력이 자녀의 진로포부에 직접 미치는 효과는 .099로 정적 영향을, 모의 성취압력이 자녀의 진로포부에 직접 미치는 효과는 -.070으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게다가, 부의 성취압력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을 통한 진로포부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62( $p < .01$ )로 부적 영향을, 모의 성취압력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을 통하여 진로포부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267( $p < .01$ )로 정적 영향을 미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부의 성취압력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총효과는 -.163, 모의 성취압력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총효과는 .19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부와 모의 성취압력이 자녀의 진로포부에 미치는 효과가 직접효과보다 간접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의 성취압력은 낮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으로 낮은 진로포부를 형성하게 하는 반면, 모의 성취압력은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낮은 스마트폰 중독을 매개로하여 높은 진로포부를 형성하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의 관계의 직접효과가 .572(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스마트폰 중독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직접효과는 .12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4  
연구모형의 직접·간접 및 총효과 (표준화계수)

관계변인		표준화계수		
독립/매개변인	매개/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부 성취압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537**	-	-.537**
	스마트폰 중독	.354**	-	.354**
	진로포부	.099	-.262**	-.163
모 성취압력	학업적 자기효능감	.526**	-	.526**
	스마트폰 중독	-.266 <sup>+</sup>	-	-.266 <sup>+</sup>
	진로포부	-.070	.267**	.197
학업적 자기효능감	진로포부	.572***	-	.572***
스마트폰 중독	진로포부	.128	-	.128

+ $p < .10$ , \*\* $p < .01$ , \*\*\* $p < .001$

한편, 매개변인의 수가 두 개 이상일 때 부트스트랩(bootstrap)절차를 사용할 경우 전체 매개효과와 유의도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간접경로와 유의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개별적 간접경로의 자료 제공을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으며(서영석, 2010),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검증결과, 부의 성취압력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z = -2.394$ ,  $p < .05$ )의 개별 매개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스마트폰 중독( $z = 1.299$ )의 개별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의 성취압력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 $z = 2.367$ ,  $p < .05$ )의 개별 매개효과는 유의하였으나, 스마트폰 중독( $z = -1.186$ )의 개별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연구모형에 대한 매개효과

독립변인	관계변인			Sobel test(z)	
	매개변인	→	종속변인		
부 성취압력	→	학업적 자기효능감	→	진로포부	-2.394*
부 성취압력	→	스마트폰 중독	→	진로포부	1.299
모 성취압력	→	학업적 자기효능감	→	진로포부	2.367*
모 성취압력	→	스마트폰 중독	→	진로포부	-1.186

\* $p < .05$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취압력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변인들 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차이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부의 양육은 모의 양육과 비교하여 경제적 제공자 및 최종 판단자라는 도구적 영역에 속해있는 이차적 역할을 하며, 함께 외출하기, 식사하기 등의 관계가 모와 청소년 자녀의 상호작용으로 더 가까운 관계가 이루어지며,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공유하게 된다는 Larson과 Richard(1995)와 초기양육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자신과 타인을 일치된 방식으로 인식하는 Bowlby(1982)의 연구결과에서처럼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학년말 중학교 1·2학년 청소년기 학생들 역시 부모는 모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부와 모의 이차적 관계를 중요시하기에 모의 성취압력과 다르게 부의 성취압력을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낮아졌고, 모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높아졌으며, 부의 성취압력보다 모의 성취압력이 자녀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모

의 성취압력을 조언 및 격려 등 학업에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받아들이며 긍정적으로 인식한 자녀일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높아지게 되지만, 부의 성취압력을 간섭 및 압박으로 받아 들여 높게 지각한 학생일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양난미, 이은경, 2008)에서는 부의 학습참여가 모의 학습참여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본 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초등학생과 달리 민감한 시기인 청소년기 중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성취압력을 관심과 기대로써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압력으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자신감 또한 낮아지게 되고, 결국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자녀의 수용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는 다르게 지각되기에(김유진, 김종운, 2013), 청소년기 중학생 자녀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부·모의 성취압력지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연구결과는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의 성취압력을 학교성적 및 생활에 있어 지나친 관심과 통제로 인식하여 억압받는다고 여기며 자신감도 결여 되지만, 모의 성취압력은 자기조절효능감과 과제난이도를 향상시켜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형성과 학업에 대한 동기 부여 및 목표달성 등의 학업수행 및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부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이 높아졌지만, 모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이 낮아졌다. 부의 성취압력보다 모의 성취압력이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이 있다(김병년, 최홍일, 2013; 박은민, 박기희, 2014)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며, 오채미와 공인숙(2007)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은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장재홍, 2004)이라는 선행연구와 같이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에 있어 부모의 성취압력은 중요한 변인이라 하겠으며,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성취압력을 긍정적, 부정적으로 지각하느냐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이 작용함을 판단할 수 있다. 결국, 부모는 민감한 시기의 청소년 자녀에게 긍정적 상황을 만들어 주고, 압력보다는 조언·격려를 해줌으로써 스마트폰 중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스마트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건전한 활용방법교육, 욕구자제 교육을 시행하고, 스마트폰 중독 예방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되었지만,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이영선 외, 2013). 프로그램의 보급을 통하여 효과적인 중독예방을 위해서는 교사·학부모·학생 대상의 안내교육, 프로그램 사용서 등의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지속적인 노력 및 학부모·교사의 관심이 요구된다.

셋째, 부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진로포부가 높아졌고, 모의 성취압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진로포부는 낮아졌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부모의 성취압력과 진로포부사이의 상관관계와 경로계수 값이 0에 근접하고 있어 부모의 성취압력이 진로포부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없는 것이며, 매개변인을 통하여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성취압력과 진로포부사이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의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의 성취압력과 진로포부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로 진로포부 수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모의 성취압력과 진로포부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는 자녀의 진로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부모의 성취압력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경유하여 높은 진로포부를 형성한다(이은영, 2009; 전태숙, 2013; O'Brien et al., 2000)는 선행연구 결과는 모의 성취압력과 진로포부관계에서 매개효과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반면에,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로 높은 중독경향이 나타난다(김민경, 2012)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낮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으로 진로장벽을 지각하게 된다(유성경 외, 2006)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부의 성취압력과 진로포부관계에서 매개효과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부모의 성취압력을 단일변인에 중점을 두어 부와 모의 서로 다른 특징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구분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연구결과의 대부분은 부모 공동의 성취압력에 의하여 자녀의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와 모의 성취압력을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의 지각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판단할 수 있으며, 부와 모의 성취압력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지각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마트폰 중독을 매개로 하여 진로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는 의의 있는 결과 일 것이다. 청소년기라는 특수한 상황과 부와 모의 역할에 따른 적절한 부·모의 성취압력으로 학

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스마트폰 중독을 최소화하여 높은 진로포부를 갖는데 영향을 미치며,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 학교생활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성취압력 중 기대와 압력의 정도를 파악하였으나, 부의 어떠한 유형이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지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에 맞추어 부의 성취압력의 효과와 모의 성취압력 효과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부적 상관관계에 있으며, 항상 스마트폰 중독이 선행되는 방향으로 존재하지 않고, 역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여 상호인과적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진로포부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정환경 변인으로써 부모의 성취압력을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정환경 변인 뿐 만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을 추가하여 진로포부와와의 관계 및 특성을 밝히고 청소년의 진로포부 형성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만철, 오익수 (2002). 청소년 인터넷 중독 진단척도 개발. **교육심리연구**, 16(4), 247-274.
- 강희양, 박창호 (2012).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 31(2), 563-580.
- 곽삼근, 조혜선, 윤혜경 (2005). 생애주기별 성역할 발달 및 갈등. **한국여성학회**, 21(2), 147-179.
- 김교정, 서상현 (2006). 청소년 인터넷 중독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환경변인의 경로모형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1), 149-179.
- 김동은, 장성숙 (2011). 자기불일치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상담**, 29, 89-110.
- 김동일, 이윤희, 이주영, 김명찬, 금창민, 남지은 외 (2012). 미디어 이용 대체·보완과 중독: 청소년과 성인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 형태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20(1), 71-88.
- 김민경 (2012). 청소년의 심리적 요인, 부모애착이 인터넷게임 중독과 휴대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4), 1-22.
- 김병년, 최홍일 (2013). 과보호적 부모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29(1), 1-25.
- 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여란 (2013). **초등학교 고학년생의 스마트폰 사용정도와 자기효능감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유진, 김종운 (2013). 중학생의 비합리적 신념 및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학업실패내성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4(2), 119-148.
- 김현순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0(1), 203-225.
- 김형지, 김정환, 정세훈 (2012). 스마트폰 중독의 예측요인과 이용행동에 관한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29(4), 55-93.
- 마미영, 정태연 (2005).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자기특성이 진로결정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2(1), 5-15.

- 박수자 (1996). **지각된 부모의 성취압력과 아동의 학습소의 및 대처행동과의 관계**. 한국 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신, 김의철 (2001). 청소년 학교폭력행동과 환경 및 심리특성의 관계: 위탁청소년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5(2), 25-52.
- 박영신, 김의철, 탁수연 (2002). IMF시대 이후 한국 학생과 성인의 성공에 대한 의식: 토착심리학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1), 103-139.
- 박영옥, 김정희 (2009). 초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관계. **학교심리와 학습컨설팅**, 1(2), 21-32.
- 박외자 (2010).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학습관여태도가 진로포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은민, 박기희 (2014).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와 모의 양육태도가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 불안과 충동성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회**, 19(3), 529-547.
- 박중규, 배성만 (2012). 인터넷 사용동기, 부모-자녀 의사소통 및 심리, 정서적 문제가 초기 성인기 집단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419-434.
-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 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손정순, 김봉환 (2009).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 수준에 따른 진로태도성숙도,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통제력의 차이. **열린교육연구**, 17(1), 75-97.
- 손진희, 손은령 (2007). 가정환경, 컴퓨터 과다사용 및 인터넷 관련 비행과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18(1), 135-162.
- 양난미, 이은경 (2008). 초등학생의 진로포부에 대한 부모학습관여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55-472.
- 오욱환 (1999). 한국사회의 교육열에 대한 고유 이론모형의 탐색. **교육학연구**, 37(4), 1-28.
- 오정희, 선혜연 (2013).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 관련 변인 연구: 성별 및 학교급, 지각된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4(3), 1981-1994.
- 오채미, 공인숙 (2007).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4), 139-149.
- 용상화 (2013).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 자기효능감, 자기통제력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영진, 홍혜영 (2011).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포부 및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한국통합치료학회**, 3(1), 31-53.
- 유성경, 홍세희, 이아라 (2006). 남녀 학업 우수 청소년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진로 포부의 관계에서 학업 효능감의 매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18(4), 837-851.
- 이선녀 (2010). **부·모의 학습관여 및 성취압력과 고등학생의 학습동기의 관계**. 강원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진, 조상철, 허일범 (2008). 부모의 학업성취압력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 29(3), 289-301.
- 이숙현, 백진아 (2004). 조기 사교육과 어머니의 역할: 가족주의 가치관과 계층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6(3), 201-235.
- 이시은, 이재창 (2008). 부모유대와 대인애착간의 관계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1), 83-101.
- 이영선, 이동훈, 김은영, 강석영, 김래선, 최영희 외 (2013).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예방 프로그램개발**(청소년상담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이윤석 (2004).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혼 및 성역할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2004년 가을 기획심포지움**, 49-70.
- 이은영 (2009). 학업 우수 청소년의 부모애착,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진로포부 관계 모형의 남녀비교. **인간이해**, 30(1), 43-59.
- 이정애, 최용용 (2010). 대학생의 장애대학생과 비장애 대학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및 진로포부 비교. **장애와 고용**, 20(2), 55-76.
- 이지연, 하정희, 전수현 (2006). 성취상황에서 부모태도가 청소년의 미래 성공기대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우울을 매개로. **교육심리연구**, 20(4), 873-890.
- 장재홍 (2004). 부모의 자녀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사용욕구를 매개로. **상담학연구**, 5(1), 113-128.
- 전태숙 (2013). 중학생의 부모학습관여와 진로포부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

- 효과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10(2), 163-191.
- 정은미 (2007). MBTI를 활용한 청소년 가족기능 강화프로그램. *청소년보호지도연구*, 11, 111-122.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 개발연구*(NIA IV-RER-11051). 서울: 한국정보화진흥원.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1), 78-102.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Company.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owlby, J. (1982).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 Brent, D. A., Kolko, D. J., Allan, M. J., & Brown, R. V. (1990). Suicidality in affectively disordered adolescent inpati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9(4), 586-593.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al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6), 545.
- Gray, M. P. (2002). *The career aspiration scale: Instrument development and research applications*. Unpublished doctoral,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USA.

- Larson, R., & Richards, M. H. (1995). *Divergent realities: The emotional lives of mothers, fathers, and adolescents*. New York: Basic Books.
- O'Brien, K. M. (1992). *Career aspiration scale*. (Available from K. M. O'Brien, Psychology Department,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MD 20742)
- O'Brien, K. M., Friedman, S. M., Tipton, L. C., & Linn, S. G. (2000). Attachment, separation, and women's vocation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3), 301-315.
- Schunk, D. H. (1990). Goal setting and self-efficacy during self-regulated lear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5*(1), 71-86.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ABSTRACT

###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nd career aspira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ell phone addiction

Lee, Jungmin\* · Chung, Hyewon\*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nd career aspiration in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cell phone addiction. The statistical methods adopted for use as data analysis tools were the SEM by AMO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showe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father and mother's achievement pressure regarding academic self-efficacy. Second, the father's achievement pressure correlated with high levels of cell phone addiction of children. However, the mother's achievement pressure correlated with lower cell phone addiction. Third, the father's achievement via academic self-efficacy and cell phone addiction was associated with the more negative aspects of career aspiration, the mother's achievement via academic self-efficacy and cell phone addiction was related to the more positive aspect of career aspiration. To improve adolescents' career aspirations, it is recommended that cell phone addiction prevention programs be more actively engaged as well as continuous career education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parents.

Key Words: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cademic self-efficacy,  
cell phone addiction, career aspiration

투고일: 2015. 3. 16, 심사일: 2015. 4. 29, 심사완료일: 2015. 5. 13

---

\* Chungnam National University